



전주매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가 16일 전주 라한호텔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대전환 · 대도약 다짐

6·3 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 지자체장 · 국회의원 · 도의원 당선인 참석 “새만금 개발 · 피지컬 AI 육성 · 지역소멸 대응 등 해결 위해 힘 모아야” 공감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도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과 지역 상공인, 언론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상생을 다짐했다.

전북이행본부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가 16일 전주 라한호텔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전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이원재 전북도내 14개 지역 시장·군수 당선인, 국회의원 당선인, 도의원 당선인, 경제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과 통합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실내와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국민의례, 당선 축하패 증정, 인사말, 당선인 인사 축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이광형 KAIST 총장이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윤석정 전북이행본부 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전북의 시대정신은 대전환과 대도약이며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500만 전북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북경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경기침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과 국가 예산 10조원 시대, 새만금 투자 확대 등 새로운 기회도 함께 찾아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피지컬 AI 실증산업단지 조성, RE100 산업단지 구축, 제3급 용출수지 지정 등 핵심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치권과 경제계, 도민들의 협력을 주문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에 열어준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전북 대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새만금 SOC 조기 완공과 현대자동차그룹 투자사업의 조기 가동을 적극 지원하고, 군산조선소 제조업 피지컬 AI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 K-푸드·K-바이오 산업 육성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9월에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중심도시 지정,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의 숙원사업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며 “도민과 함께 포용과 통합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전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은 “선거는 전쟁 같지만 교육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도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현재 전북은 화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깨끗한 교육청을 만들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워 새만금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는 유난히 치열했고 지역사회 곳곳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며 “이제는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던 원팀 정신이 이제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기회의 문을 경제적 기회의 문으로 바꾸어 전북과 전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원 당선인을 대표해 인사한 이명연 당선인은 “당선의 기쁨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며 “4년 뒤 도민들로부터 약속을 지킨 의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전북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화합과 협력을 실천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새만금 개발과 피지컬 AI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지역소멸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행정, 경제계, 언론, 도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천주교 순교지, 국가 사적된다

도 기념물 ‘완주 남계리유적’, 국가유산청서 지정 예고 한국 최초 순교자 유해 등 출토... ‘국가적 가치 인정’

완주군(군수 유희태)은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이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완주 남계리유적’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위치한 완주 남계리 유적은 조선 후기 신해박해 당시 최초로 순교한 윤지충·권상연과 신유복해 당시 순교한 윤지현·유항검 등 순교자 유해 및 관련 유물이 출토된 장소로 알려진 유적이다.

이 유적은 조선 후기 천주교의 수용과 확산 과정은 물론 당시 지역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남계리 유적은 조선 후기 사회·사상사와 종교문화의 변화를 입증하는 역사 현장으로서 한국 천주교 초기 공동체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관련 기록과 유적의 입지, 역사적 배경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완주군은 그동안 남계리 유적의 가치 규명을 위해 학술조사와 문헌



완주 남계리유적 전경.

(사진=완주군청 제공)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가 사적 지정예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남계리 유적의 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유산청은 관계 기관 의견수렴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적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며, 향후 학술연구와

정비사업,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사업의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 남계리 유적의 국가 사적 지정예고는 완주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를 통해 역사문화 자산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염재복 기자

도, 여름철 감염병 선제대응체계 구축... 도민 건강 보호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중관리관 운영·상시 감시 C형간염 퇴치목표 예방·검사·치료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장마, 휴가철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특히, 집단발생 우려가 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와 해외유입감염병 차단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14개 시군 보건소가 함께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감염병 집단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식중독 사고를 가정한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배달전문 음식점과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해외유입감염병의 지역사회 유입 방지를 위한 감시와 홍보도 강화한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 증가 예상됨에 따라 홍역, 덴기열 등 해외유입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사전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덴기

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피해 사용 긴소매 착용 등 개인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에볼라바이러스, 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 해외 발생 감염병에 대해서도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해 국내 유입에 대비할 계획이다.

해외유입감염병의 경우 국내 전파 위험을 동반하는 만큼 해외여행 전 방문국의 감염병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귀국 후 발열, 발진, 설사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 또는 1339에 상담·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는 WHO의 2030바이러스 감염 퇴치 목표에 맞춰 2024년부터 14개 시군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GOMUJU

쏟아지는 햇살 아래
푸르른 숲바람
새하얀 물보라
마음을 씻기는 여름

가자, 우주로!
시원한
자연특별시 우주의 여름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자연특별시 대표관광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문의 1899-8687